

# 다니엘서 - 번호 98

엘리야의 세 가지 적용과 마지막 때의 심판: 조사 및 집행 단계에 대한 이해

Jeff Pippenger

2024-02-29

엘리야의 삼중 적용은 말세의 시작과 말세의 끝에 엘리야가 있을 것임을 밝혀준다. "말세"는 심판의 때이며, 그 심판은 점진적이고 두 종류로 나뉜다. 말세의 시작에 개시된 조사 심판과, 말세의 끝에 이루어지는 집행 심판이다. 엘리야의 삼중 적용은 주로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는 집행 심판의 역사를 대표한다.

조사심판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로 제한되며, 이는 주로 직접적인 신앙고백에 의한 것이지만, 소수의 경우에는 생활양식을 통한 간접적인 신앙고백에 의한 경우도 있다.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담긴 일을 행할 때, 그들은 율법이 없어도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니, 이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일이 드러나고 그들의 양심도 증언하며,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를 고발하거나 변명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2:13-15.

조사심판에는 두 가지 주요 구분이 있다. 이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죽은 자들(아담의 시대부터)의 생애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01년 9월 11일에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조사심판'의 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조사심판에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의 구분을 넘어 또 다른 구분이 있는데,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은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이다. 곧 도래할 일요일 법령 때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이 종결되면, 그때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양 떼가 심판을 받는다.

집행적 심판은 그분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집행적 심판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이 발효될 때 시작된다. 그때 미국은 진노의 잔, 곧 그 유예 기간의 잔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며, 국가적 배교 뒤에는 국가적 파멸이 뒤따를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일요일 법령을 시행하는 데 있어 미국의 본을 따를 것이고, 그 나라들 각각도 자기들의 잔을 가득 채우고 또한 국가적 파멸을 겪게 될 것이다.

"종교적 자유의 땅인 미국이 양심을 강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교황권과 연합하게 될 때,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그녀의 본을 따르도록 이끌리게 될 것이다." Testimonies, volume 6, 18.

또한 집행 심판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미국에서 일요일법이 제정되는 때부터 미가엘이 일어나 은혜의 시기가 단힐 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자비가 섞여 있지만, 미가엘이 일어날 때에는 일곱 마지막 재앙이 쏟아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는 자비가 없다. 일요일법 위기 기간 동안 사람들과 나라들 위에 임하는 집행 심판은 자비와 섞여 있을 것이다. 이는 그때에도 바벨론 가운데 아직 안식일과 일요일 예배의 구별을 이해할 기회가 주어지는 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고하심의 때를 알기만 한다면! 아직 이 때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듣지 못한 이들이 많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절히 씨름하고 계신 이들도 많다. 하나님께서 파멸의 심판을 내리시는 때는, 무엇이 진리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는 자비의 때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자애롭게 굽어보실 것이다. 그의 자비의 마음은 감동되었고, 구원하시려는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다. 한편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문이 닫혀 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오래 참으심에서 드러난다. 그분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경고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 우리 백성이 세상에 마지막 자비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마땅히 느끼기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증언, 9권, 97쪽.

"하나님의 파괴적인 심판의 때는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는 자비의 때이다." 그 두 "때"는 "들어가려 하지 않은" 라오디게아 재림교인들에게 "문이 닫힐" 때 함께 시작된다.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지금도 그러하고 장차도 그러하여,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과 불신자들 사이를 구별하는 담이라는 것을 보았다; 또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중대한 쟁점이라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만일 어떤 이가 믿고 안식일을 지키며 그에 따르는 복을 받고서, 그것을 포기하고 거룩한 계명을 깨뜨린다면, 높은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만큼 확실하게,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거룩한 성의 문을 닫아 버리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는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자녀들도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빛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환난의 때가 시작될 때, 우리는 나아가 안식일을 더욱 온전히 선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은 교회와 명목상의 재림신자들을 격분하게 했는데, 그들은 안식일의 진리를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모두가 우리가 진리를 가졌음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그 박해를 견뎠다." 작은 무리에게 보내는 말씀, 18, 19.

곧 다가올 일요일법이 시행될 때 문이 닫히게 되어, 일요일법 이전의 기간이 하나님의 백성의 '방문'의 '때'가 된다.

너희가 어찌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느냐? 보라, 참으로 그것을 헛되게 만들었도다; 서기관들의 붓이 헛되도다. 지혜로운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놀라며 사로잡히니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 안에 무슨 지혜가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이에게 주며, 그들의 밭을 그것을 상속할 자들에게 주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각기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가볍게 고치며 이르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수치를 느꼈느냐? 아니라,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넘어지는 자들 가운데 넘어질 것이요, 그들의 별하심의 때에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8:8-12.

고대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현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돌아보심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둘 다 멸망한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을 향한 하나님의 돌아보심의 때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어,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으로 종결된다.

그가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그 위하여 우시며 말씀하시되, 너라도, 적어도 오늘 이 날에, 너의 평화에 속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네 눈에서 숨겨졌도다. 너의 원수들이 너를 둘러 토성을 쌓고 사방에서 에워싸 가둘 것이며, 너와 네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에 무너뜨리고, 네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 두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권고의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19:41-44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영원히 분리된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으나 세속인들과 연합한 성별되지 않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이 미혹하는 영들에게 귀를 기울여 완전히 신앙에서 떠날 것을 알고 있다. 원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려고 기꺼이 그들에게 유혹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신실하고 굳건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제7권, 186쪽.

그들의 권고의 때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1840년 8월 11일 개신교회들에 임한 권고의 때로 예표된 바와 같으며, 그리스도의 침례 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고대 이스라엘에게 권고의 때가 시작되었던 것과도 같다.

집행 심판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미국이 그 은혜의 기간의 잔을 채울 때 시작되며, 그때는 라오디게아 재림교회 역시 그들의 잔을 채운 때이기도 하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며, 미국의 부패한 두 뿔 모두의 은혜의 기간의 잔에서 시작된다. 이전에 라오디게아 재림교회가 대표해 왔던 부패한 개신교의 뿔은 그때 그치고, 셋째 천사의 필라델피아 운동이 참된 개신교의 뿔이자 기치로 높이 들려지는 영적 예루살렘이 된다. 그 시점에 예루살렘은 전투하는 교회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바뀐다.

집행 심판은 하나님의 멸하는 심판의 때, 곧 아직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양무리에게는 자비의 때이기도 한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방문의 때가 끝날 때 시작된다. 집행 심판은 자비가 더 이상 섞이지 않는 일곱 마지막 재앙으로 진행되고, 그 후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20장의 천 년(일천 년)은 사탄이 하나님을 향한 공격에 가담했던 반역한 천사들과만 함께 황폐해진 지구에 결박되어 있음을 밝힌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그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가 그 용, 곧 옛 뱀이며 마귀요 사탄인 자를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하고, 그를 무저갱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후에는 반드시 잠시 놓이게 되리라. 요한계시록 20:1-3.

그 천년 동안 구원받은 자들은 아직 무덤에서 잠든 채 각 개인에 대한 심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멸망한 자들에 대해 조사 심판을 수행할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포함한 멸망한 자들의 삶과 정황을 살펴, 천년이 끝날 때 누가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나는 보좌들을 보았고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었으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하고, 짐승에게도 그의 형상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였다. 요한계시록 20:4.

그러므로 천년기는 조사심판을 포함하며, 그것이 끝나면 죽은 악인들이 부활할 때 최종 집행심판을 가져온다. 그때 그들을 완전히 장악한 사탄은 천년기의 끝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악인들을 설득한다. 악인들이 공격을 감행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최종 집행심판이 이루어진다.

천 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와, 땅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려고 할 것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싸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렸다. 요한계시록 20:7-9.

엘리야의 세 가지 적용과, 언약의 사자께서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는 사자에 관한 사안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그들의 사역에는 구별이 있다. 곧 엘리야는 주로 그 사자의 사역과 그 사자의 기별과 연합된 운동을 식별하는데, 그것은 임박한 일요일 법령과 함께 시작되는 집행적 심판 동안에 성취된다.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그 사자는 주로 조사 심판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역을 식별한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그들을 찾아오시는 때를 알지 못하는데, 이는 특정한 심판의 기간을 가리킨다.

그들은 또한 그들을 방문하시는 때에 선포되는 "현진리" 기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 시대의 심판과 기별을 모두 알아야 했다. 또한 그 기간의 사자(使者)도 알아야 했다. 라오디게아적 눈먼 상태에서 그들은 그때의 기별에 반대하고, "평안과 안전"이라는 기별로 그들을 방문하시는 때를 부인하며, 그 기간에 택함받은 사자가 누구인지도 확신하지 못한다. 이 진리는 둘째 엘리야, 곧 세레 요한의 증언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유대인들은 예언이 오실 사자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는 요한이 바로 그 오실 사자라고 직접 가르쳤다.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하였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거든, 그가 바로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13-15.

그들의 권고의 기간이 막 끝나가던 때(임박한 일요일 법령을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역사 속의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구해 줄지 짐작하였다. 언약을 자기 피로 확증하고 계시던 언약의 사자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다. 말세의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은 자기들의 심판, 곧 그들의 권고의 때를 알아야 한다. 그들은 그 시기의 기별을 알아보아야 하며, 그 시기에 선택된 사자를 알아보아야 한다. 1888년의 반역은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강림한 2001년 9월 11일에 표상되었다. 1888년의 반역자들은 말세를 예표하고 있던 그 역사 속에서 선택된 사자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로 보내는 칼 때문이라. 이에 내가 여호와와 손에서 그 잔을 받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곧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에게 마시게 하여 그들로 황폐와 놀람과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였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섞여 사는 모든 민족과 우스 땅의 모든 왕들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들과 아스글론과 아자와 에그론과 아스돗에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들과 시돈의 모든 왕들과 바다 건너 섬들의 모든 왕들과, 데단과 데마와 부스와 모퉁이를 깎은 모든 자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광야에 사는 섞여 사는 백성의 모든 왕들과, 시므리의 모든 왕들과 엘람의 모든 왕들과 메대의 모든 왕들과, 멀고 가까운 북쪽의 모든 왕들, 서로 서로와, 지면에 있는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왕국들이며, 그 뒤에 세삭의 왕이 그들을 따라 마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마시고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보내는 칼 때문이라. 그들이 네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읍에 내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거늘 너희가 온전히 형벌을 면하겠느냐? 너희가 면하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 사는 모든 거민에게 칼을 부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그의 목소리를 내시며 그의 처소 위에서 힘있게 포효하시고, 포도를 밟는 자들 같이 외치시며 땅의 모든 거민을 치시리라.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라들과 송사하시며 모든 혈육과 변론하시며 악한 자들을 칼에 넘기실 것임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로 나아가고 큰 회오리바람이 땅의 변두리에서 일어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 죽임 당한 자들이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으리니 그들을 슬퍼하지도 모으지도 묻지도 못하고 땅 위에 분토가 되리라. 예레미야 25:15-33.